産業構造 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成*

金 栽 元

▷ 目 次 ◁

Ⅰ. 序 論
Ⅱ. 産業構造의 調整과 經濟成長
Ⅲ.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
Ⅳ.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우리에게 주어진 賦存資源條件과 一致하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輸出産業은 海外市場에서 比較優位를 갖는가?

臺灣,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中共까지도 오늘날 우리의 主要 競爭相對國으로 등장하고 있고 先進工業國들에서는 점차적으로 保護主義가 强化되고 있어서 우리의 輸出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經濟成長 역시 鈍化되고 있다. 이같은 時點에서 이를 打開하고 高度成長을 持續化하기 위해서는 産業構造의 再調整과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중요한 政策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經濟成長이 生産要素의 生産性增加에 더 크게 의존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産業構造의 再調整이란 賦存資源條件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있는 産業을 重點的으로 育成하는 發展戰略을 意味한다. 産業構造를 우리의 賦存資源條件에 맞도록 再調整하는 것은 곧 經濟成長의 費用을 最少化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産業構造의 高度化도 論理的 觀點은 위와 동일하다. 다만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말할 때에는 生産의 專門化를 좀더 細分化한다든지 技術의 開發 및 革新을 통해서 附加價値比率을 높인다는 적극적인 意味가 추가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나간 20여년간 만성적인 國內物價上昇을 경험하여 왔고 여기에 덧붙여 政府의 적극적인 産業支援政策(예를 들면 市場에서의 實質金利보다 낮은 公金融機關의 利子率, 低

筆者 :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이 論文은 筆者의 『産業構造 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成』, KDI 政策報告 85-01(1985) 중에서 重要한 부분을 발췌한 것임.

利의 輸出金融, 其他의 여러 가지 政策金融 등) 때문에 産業構造가 크게 歪曲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物價安定과 더불어 産業構造의 再調整 및 高度化가 오늘날 經濟政策의 核心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産業構造의 再調整과 高度化를 위한 政策手段으로는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와 더불어 金融自律化, 中小企業育成, 技術開發 등이 重要手段으로 動員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産業構造의 再調整과 高度化는 資源配分이 市場機能에 맡겨져야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諸手段들, 예를 들면 經濟開放化, 金融自律化, 中小企業育成政策, 그리고 技術開發政策 등도 모두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다. 産業構造 再調整과 産業構造 高度化 및 技術開發 등이 輸出을 促進하고 窮極的으로 經濟의 高度成長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諸手段들이 中小企業育成과도 論理的으로 相通하는가? 다시 말해서 中小企業의 育成이 輸出促進·經濟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中小企業의 育成이 市場에서의 競爭을 提高해서 市場의 機能을 活性化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生産形態를 多樣化하여 社會福祉水準을 증가하며 雇傭을 擴大한다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理解되고 있는 假說이다. 여기서는 巨視的 觀點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이 産業構造 再調整과 高度化를 위해 얼마나 重要한가를 理論的으로, 그리고 實證的 分析을 통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1)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統計는 金栽元(1984) 〈表 3〉, 〈表 4〉 (pp. 154~155) 參照.
2) 이에 대한 統計는 金栽元(1984) 〈表 11〉 (p. 63) 參照.

Ⅱ. 産業構造의 調整과 經濟成長
—理論的 模型의 接近—

여기서는 産業構造의 再調整 또는 高度化와 經濟開放化, 中小企業育成, 技術開發, 그리고 經濟成長과의 關係를 간단한 理論的 模型을 통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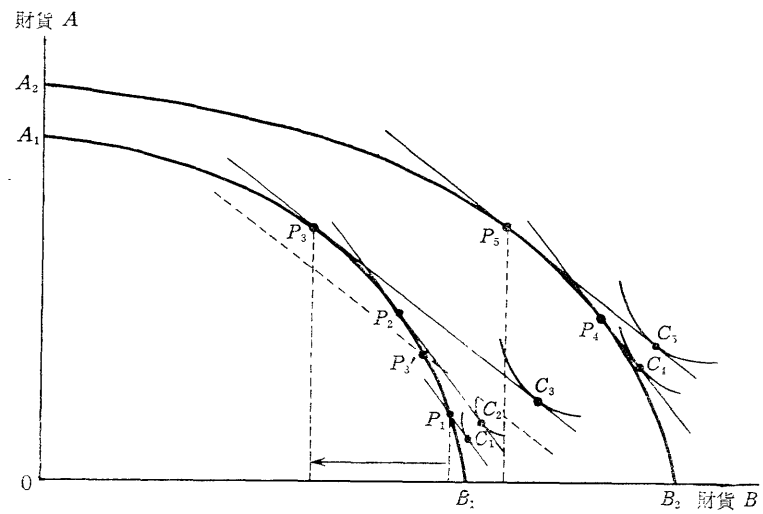
먼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假定으로부터 出發하기로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資本集約的 構造로 歪曲되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勞動과 資本의 相對的 比重에 비해서 資本集約的 産業 또는 資本集約的 生産方式에 의한 生産의 比重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成長政策이 規模의 經濟效果(economies of scale effect)에 크게 의존하여 온 반면 要素市場(특히 金融市場)이 歪曲되어 資本使用에 대한 補助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公金融機關의 利子率이 市場에서의 實質金利보다 크게 낮았다는 점과 政策金融의 比重이 매우 컸었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理解가 가는 일이다[1].

둘째, 우리나라의 中小企業들은 일반적으로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더 活潑하게 生産活動에 임하고 있거나 같은 財貨를 生産하더라도 勞動集約的 生産方式을 택한다고 假定한다. 이것은 中小企業의 本質로부터도 유추가 가능한 것이며 또 實證的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2].

세째, 工業先進國들과 比較하여 볼 때 우리

〔圖 1〕 産業構造의 調整過程



나라는 資本貧弱國(capital-poor country)이기 때문에 經濟가 完全開放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資本集約的 財貨의 相對價格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높다고 假定한다. 다시 말해서 Heckscher-Ohlin-Stolper理論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의 經濟가 完全開放되면 資本集約的 財貨의 相對價格은 下落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假定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論理를 展開시킬 수 있다.

1. 對內的 調整과 對外的 調整

〔圖 1〕에서 財貨 A(縱軸)를 勞動集約的, 財貨 B(橫軸)를 資本集約的 財貨로 假定하기로 한다. 曲線 A_1B_1을 어느 特定時點에서의 生產可能曲線이라고 하고 初期(調整以前)의 生產 및 消費均衡點을 P_1과 C_1이라고 假定하기로 한다. 點 P_1을 지나는 直線(P_1C_1)을 價格線이라고 한다면 初期에 있어서의 價格線은 點 P_1에서 生產可能曲線과 접하지 않고 交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의 假定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예 : 資本使用에 대한 補助) 때문이다[3]. 그러므로 産業構造의 調整은 生產可能曲線과 價格線이 접하는

3) A 및 B 産業의 生產函數를 각각 다음과 같이 表示하기로 한다.

$$X_A=A(K_A, L_A),\quad X_B=B(K_B, L_B)$$

K 및 L은 각각 資本스톡 및 勞動投入量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dX_A=MP_K^A dK_A+MP_L^A dL_A,$$
$$dX_B=MP_K^B dK_B+MP_L^B dL_B \text{ 이다.}$$

γ, ω를 각각 利子率 및 賃金率, P를 生產物의 價格이라고 하면,

$$\gamma=MP_K\cdot MR,\quad \omega=MP_L\cdot MR,\quad MR=P\left(1-\frac{1}{\eta}\right)$$

이 된다. 만일 모든 市場이 競爭的이라고 하면

$$\eta=\infty,\quad \gamma=\gamma_A=\gamma_B,\quad \omega=\omega_A=\omega_B \text{ 가 될 것이므로}$$

$$\frac{dX_A}{dX_B}=\frac{\frac{1}{P_A}(\gamma dK_A+\omega dL_A)}{\frac{1}{P_B}(\gamma dK_B+W dL_B)}=\frac{P_B}{P_A}$$

즉 限界變換率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frac{dA}{dB}$)과 價格比率이 一致하여 價格이 生產可能曲線과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生產要素에서 資本使用에 대한 補助가 주어지면

$$\gamma_A=\rho\gamma_B, \rho<1$$

이 되어 企業이 실제로 當面하는 限界變換率은

$$\frac{dX_A}{dX_B}=\frac{\frac{1}{P_A}(\gamma dK_A+\omega dL_A)}{\frac{1}{P_B}(\rho\gamma dK_B+\omega dL_B)}>\frac{P_B}{P_A}$$

이 된다.

點(限界變換率과 價格比率이 같아지는 점)에서 生產均衡點이 形成되도록 生產을 調整하는 일이다. 이제 만일 다른 條件들은 변하지 않은 채(즉 모든 市場이 競爭的이고) 資本使用에 대한 補助(또는 資本集約的 產業에 대한 補助)를 제거하여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을 없애면 어떠한 現象이 發生할 것인가[4]?

우선 現在의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은 전적으로 金融制度上의 問題로 돌리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의 金融慣行이 利子率에 의한 配分보다 政策的 配分에 크게 依存하는 것이 現實이라는 점과 生產性(效率性)보다는 (擔保力에 의한) 安全性에 더 크게 依存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資金供給源에의 接近에 相對的으로 더 어려운 企業(예 : 中小企業)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生產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을 가져오는 가장 重要한 原因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같은 要素市場에서의 歪曲이 矯正되면(예를 들어 金融自律化, 自律的인 金利政策 등) 다른 條件이 일정한 한 〔圖 1〕의 點 P_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勞動集約的 財貨(財貨 A)의 生產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點 P_2에서는 限界變換率과 價格比率이 일치하게 되어 對內的 調整이 完了되게 되며 이것이 產業構造調整의 一段階 效果이다.

이제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生產均衡點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의 假定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資本이 相對的으로 貧弱한 나라이기 때문에 經濟開放化가 이루어진 연후에는 資本集約的 財貨의 相對價格이 낮아질 것이다. 즉 價格線의 기울기(절대값)가 한층 더 완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圖 1〕에서 새로운 價格體系에서의 生產均衡點은 點 P_3로 움직일 것이다. 點 P_3에서 다시 限界變換率과 價格比率은 일치하고 있다. 點 P_3는 다른 모든 條件이 일정할 때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이 이루어진 후, 즉 巨視的 均衡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初期의 均衡點(P_1)과 調整 後의 均衡點(P_3)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財貨 B의 生產은 크게 주는 반면 財貨 A의 生產은 크게 伸張되었다. 만일 財貨 B가 資本集約的 產業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財貨라도 資本集約的 生產方式에 의해서 生產되며 이것은 주로 大企業에 의해서 生產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產業構造의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은 大企業의 生產活動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產業構造의 調整은 다른 條件이 변하지 않는 한 勞動集約的 產業의 生產活動을 促進하게 될 것이고, 企業形態別로 보면 中小企業에 유리한 經濟環境의 造成을 의미하게 된다.

둘째, 이같은 產業構造의 調整은 社會的 福祉(social welfare) 水準의 증가를 의미한다. 즉 生產이 P_1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社會福祉의 水準이 C_1이었으나 生產均衡點이 P_3로 움직였을 때는 그것이 C_3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社會福祉가 크게 增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工業先進國에서는 勞動組合의 結成으로 生產要素市場의 歪曲이 勞動市場에서 發生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發展初期段階에 있는 國家에서는 오히려 勞動市場에서의 需要獨占的 現象이 要素市場 歪曲의 原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模型의 單純化를 위해서 勞動市場이 競爭的이라고 假定하기로 한다.

2. 産業構造 高度化와 經濟成長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經濟의 다른 條件이 변하지 않은 채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이 이루어지면 資本集約的 産業에서의 生産水準이 減少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실제 經濟에서 産業의 構造(生産體制)가 손쉽게 變形(putty model)될 수 없다면 위와 같은 現象은 一部産業에서 生産施設의 過剩, 失業의 增加 등 構造的 問題를 誘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內部에서 質的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한 소기의 目的을 現實的으로 達成할 수 없게 된다.

이제 産業構造의 調整과 더불어 技術開發에 拍車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圖 1〕을 통해서 技術開發이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더불어 産業構造의 調整을 통한 高度成長의 達成이 가능하게 됨을 볼 수 있다.

技術의 開發은 比較靜學的 觀點에서 볼 때 生産可能曲線이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技術開發에 의해서 生産可能曲線이 A_1B_1에서 A_2B_2로 움직였다면 生産可能曲線 A_1B_1上의 點 P_3는 A_2B_2上의 P_5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과 技術開發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의 最終均衡點은 P_5가 될 것이다. 이제 P_1, P_3, 및 P_5를 각각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_5에서는 産業構造에 대한 對內的 및 對外的 調整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限界變換率과 價格比率이 일치하고 있다.

둘째, 點 P_1 및 點 P_3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點 P_5에서는 資本集約的인 B財貨産業에서도 生産이 증가하였으므로 過剩施設이나 失業과 같은 構造的 問題가 擡頭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의 分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첫째, 成功的인 産業의 調整을 통해 安定的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一般的 政策手段(예, 輸入自由化, 民間主導, 金融自律化)을 動員하는 외에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적극적 對策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價格比率과 限界變換率이 일치하도록(價格線이 生産可能曲線과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政策手段이 動員된다고 하더라도 財貨 A를 生産하는 産業(또는 中小企業)에서의 生産彈力度가 낮으면 産業構造의 調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政策과 더불어 技術開發을 위한 努力이 併行되어야 한다. 이것이 産業構造 高度化를 통한 高度成長의 方法임을 위의 分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

우리는 앞의 章에서 産業構造調整, 中小企業育成, 技術開發, 高度成長의 相互關係를 간단한 模型을 利用하여 說明하였다. 産業構造의 再調整과 高度化를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育成이 併行되어야 하며 經濟內의 構造的 問題를 解消하고 高度成長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이 매우 중요한 要素임을 보았다. 그러나 中小企業의 育成이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고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에 의한 輸入代替와 輸出促進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寄與할 수 있을까? 즉 高度成長이 中小企業의 育成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앞에서 分析한 理論的 假說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기로 한다. 우선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을 비교하기 위해서 各 產業(207個 I-O部門)에서 中小企業의 比重(當該產業에서 中小企業의 附加價値比重)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比重이 높은 產業(中小企業 中心產業)들의 對外競爭力을 비교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는데 비교의 基準으로는 需要增加에 따른 生產增加, 輸出擴大, 輸入代替의 크기를 測定하였다.

1. 分析을 위한 模型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을 分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投入一產出 模型을 이용하였으며 實證的 分析을 위해서는 韓國銀行의 1975年과 1980年의 產業聯關表를 사용하였다. 먼저 分析을 위한 模型의 展開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과 같은 投入一產出表의 基本骨格으로부터 出發하였다.

$$AX+F+E-M=X \quad \cdots\cdots(1)$$

$A^{(n\times n)}$: 投入係數行列(matrix)

$F^{(n\times 1)}$, $E^{(n\times 1)}$: 國內最終需要 및 輸出「벡터」

$M^{(n\times 1)}$: 輸入「벡터」

$X^{(n\times 1)}$: 總產出「벡터」

위의 式을 X에 대하여 풀면,

$$X=(I-A)^{-1}(F+E-M) \quad \cdots\cdots(2)$$

이 된다. 여기서

$$(I-A)^{-1}=\{\mu_{ij}\},\ i,j=1\cdots n \quad \cdots\cdots(3)$$

이다.

式(2)에서 어느 特定產業의 均衡產出量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X_i=\sum\mu_{ik}(F_k+E_k-M_k)$$
$$=F_i^*+E_i^*-M_i^*,\ k=1,\cdots n \quad \cdots\cdots(4)$$

이제 各產業에서의 輸出比率 및 輸入比率(各產業에서 間接效果를 포함한 總輸出額 및 總輸入額의 該當產業 總產出額에 대한 比率)을 각각 다음과 같이 表示하기로 한다.

$$e_i^*=\frac{E_i^*}{X_i} \quad \cdots\cdots(5)$$

$$m_i^*=\frac{M_i^*}{X_i} \quad \cdots\cdots(6)$$

그러므로,

$$E_i^*=e_i^*X_i \quad \cdots\cdots(5)'$$

$$M_i^*=m_i^*X_i \quad \cdots\cdots(6)'$$

이 된다. 따라서 式(4)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X_i=F_i^*+e_i^*X_i-m_i^*X_i \quad \cdots\cdots(4)'$$

윗 式을 X_i에 대해서 풀면,

$$X_i=\frac{1}{1-e_i^*-m_i^*}F_i^*=T_iF_i^* \quad \cdots\cdots(7)$$

$T_i=\frac{1}{1-e_i^*+m_i^*}$: i-產業에서의 貿易乘數

이 된다.

이제 위의 모든 變數들을 比較時點別로 구분하여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P_iX_i^0=T_i^0P_iF_i^{*0} \quad \cdots\cdots(8)$$

$$X_i^t=T_i^tF_i^{*t} \quad \cdots\cdots(9)$$

$$T_i^0=\frac{1}{1-e_i^{*0}+m_i^{*0}}$$

$$T_i^t=\frac{1}{1-e_i^{*t}+m_i^{*t}}$$

P_i : 換價指數

그러므로, 어느 特定產業(i-產業)에서 比較期間 동안의 生產增加量(ΔX_i)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Delta X_i&=X_i^t-P_iX_i^0\\&=T_i^0(F_i^{*t}-P_iF_i^{*0})\\&\quad+T_i^0[(e_i^{*t}-e_i^{*0})+(m_i^{*0}-m_i^{*t})]X_i^t\end{aligned}\quad\cdots\cdots(10)^{5)}$$

따라서 어느 特定產業(i-產業)에서의 生產增加率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g_i=\frac{\Delta X_i}{X_i^t}=T_i^0f_i^*+T_i^0(EX_i+MS_i)\quad\cdots\cdots(11)$$

g_i : i-產業에서의 生產增加率

$f_i^*=\dfrac{F_i^{*t}-P_iF_i^{*0}}{X_i}$: i-產業에서의 內需市場擴大效果

EX_i : i-產業에서의 輸出擴大效果

MS_i : i-產業에서의 輸入代替效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模型은 다음과 같은 構造上의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첫째, 다른 條件(예를 들면 輸出과 輸入比率)에 변함이 없는 한 ($e_i^{*t}-e_i^{*0}=0, m_i^{*0}-m_i^{*t}=0$) 各產業에서의 生產增加는 國內最終需要의 增加에 依存한다.

둘째, 貿易乘數(T_i)는 輸出比率에는 正의 關係, 輸入比率에는 負의 關係를 가지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은 範圍에서 決定된다. 즉

$0\leq e_i^*,\ m_i^*\leq 1$ 이므로

$$\frac{1}{2}\leq T_i<\infty$$

이 된다.

세째, 만일 輸出 및 輸入比率이 일정하지 않고 變化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變化의 크기가

$$(e_i^{*t}-e_i^{*0})+(m_i^{*0}-m_i^{*t})=0$$

이면 生產增加는 國內最終需要增加에 依存하게 된다.

네째, 國內最終需要의 增加는 없어도 輸出擴大 및 輸入代替의 純效果가 正이면, 즉

$$(e_i^{*t}-e_i^{*0})+(m_i^{*0}-m_i^{*t})>0$$

이면 i-產業에서의 生產은 增加하게 된다.

다섯째, 輸出擴大나 輸入代替는 動態的 槪念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特定年度(t期)에 輸出(輸入)比率이 높다(낮다)고 하더라도 比較年度(0期)의 그것보다 더 높지 않으면(낮지 않으면) 輸出擴大(輸入代替)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模型에서는 特定產業에서 輸出擴大效果(또는 輸入代替效果)가 적거나 마이너스라고 해서 該當產業의 輸出比率(輸入

---

5) $\Delta X_i=X_i^t-P_iX_i^0=T_i^tF_i^{*t}-T_i^0P_iF_i^{*0}$
$=T_i^0(F_i^{*t}-P_iF_i^{*0})+T_i^tF_i^{*t}-T_i^0F_i^{*t}$
$=T_i^0(F_i^{*t}-P_iF_i^{*0})+(T_i^t-T_i^0)F_i^{*t}$

式(9)에서 $F_i^{*t}=(T_i^t)^{-1}X_i^t$이므로 윗 式을 다시 쓰면,

$\Delta X_i=T_i^0(F_i^{*t}-P_iF_i^{*0})+(T_i^t-T_i^0)(T_i^t)^{-1}X_i^t$
$=T_i^0(F_i^{*t}-P_iF_i^{*0})+\left(1-\dfrac{T_i^0}{T_i^t}\right)X_i^t$
$=T_i^0(F_i^{*t}-P_iF_i^{*0})+\dfrac{e_i^{*t}-e_i^{*0}+m_i^{*0}-m_i^{*t}}{1-e_i^{*0}+m_i^{*0}}X_i^t$
$=T_i^0(F_i^{*t}-P_iF_i^{*0})+T_i^0[(e_i^{*t}-e_i^{*0})+(m_i^{*0}-m_i^{*t})]X_i^t$

이 된다

比率)이 반드시 낮다(높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輸出擴大效果나 輸入代替效果가 낮더라도 貿易乘數가 크면 그 産業은 높은 輸出比率 또는 낮은 輸入比率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對外競爭力 有無 判斷의 基準

産業別 對外競爭力은 基本的으로 式(10)과 式(11)을 利用하여 判斷하기로 한다.

가. 生産增加率

式(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特定産業(i-産業)의 成長率(生産增加率)은 T_i^0(貿易乘數), f_i^*(內需市場 擴大效果), EX_i(輸出擴大效果), MS_i(輸入代替效果)의 크기에 依存하게 된다. 만일 T_i^0(貿易乘數)가 주어지면 成長率(g_i)은 f_i^*, EX_i, MS_i에 依存하게 된다(우리의 分析에서는 $T_i=T_i^0$로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

위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輸出擴大效果(EX_i)와 輸入代替效果(MS_i)는 動態的 槪念으로 測定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特定産業에서 輸出이 이미 많이 되고 있을 때 比較年度에서 그 輸出比率이 더 커지지 않는 한 우리의 模型에서는 輸出擴大效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輸入代替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論理임).

그러므로 對外競爭力의 有無를 輸出擴大效果나 輸入代替效果만으로 測定하는 것은 問題가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各産業에서의 生産增加率을 가지고 國內外 市場에서의 全般的 競爭力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內需市場이 擴大되었을 때 (f_i^*의 增加)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國內生産水準은 그대로 있으나 輸入이 증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輸入數量은 그대로 있으나 國內生産만이 增加하는 경우이다(後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輸出의 減少를 同伴할 수도 있음). 만일 國內生産水準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g_i=g_i^0$) 輸入이 增加하였다면 그 産業은 우선 需要의 生産彈力度가 낮다는 것을 意味하는 동시에 對外的으로는 競爭力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國內生産量이 增加하면(비록 輸出이 減少하더라도) 그 産業은 生産이 需要에 대해서 彈力的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對外競爭力을 保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開放經濟體制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는 對內的 및 對外的 市場의 어느 한 곳 또는 모두에서 競爭力이 있을 때 그 産業을 競爭力이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特定産業에서 對外競爭力의 有無를 판단하는 一次的인 基準은 그 産業에서의 生産增加率(成長率)이 될 것이다[6].

産業別 生産增加率(成長率)의 比較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指數方式을 使用하기로 한다.

$$\bar{g}_i=\frac{\dfrac{\Delta X_i}{\frac{1}{2}(X_i^0+X_i^t)}}{\dfrac{\sum_i \Delta X_i}{\frac{1}{2}\sum_i (X_i^0+X_i^t)}} \quad \cdots\cdots\cdots\cdots(12)$$

여기서 ΔX_i는 式(10)에서와 마찬가지로 i-産業에서 두 時點間의 生産增加量을 말하며 X_i^0와 X_i^t는 不變價格으로 表示된 두 時點에서의

6) 例外的인 경우로, 對外競爭力은 있으나 國內消費패턴의 변화로 國內需要가 減少하여 生産增加率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擴大效果의 크기로 對外競爭力의 有無를 판정하기로 한다.

總生產量이다. 그러므로 $\bar{g}_i$는 全製造業 平均生產增加率에 대한 i-產業 生產增加率의 比率로서 그 크기가 1보다 크면 高成長產業(製造業平均보다 더 빨리 生產이 增加된 產業)이고 그것이 1보다 작으면 低成長產業을 意味하게 되다.

그 밖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충족하는 產業들도 또한 對外競爭力이 있는 產業으를 구분하기로 한다.

나. 輸出擴大效果

위에서 본 바의 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그것이 0.8 이상이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度가 20% 이하인 產業도 對外競爭力을 保有한 產業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즉

$$1>\bar{g}_i\geq 0.8$$

$$\frac{T_i^0 EX_i}{g_i}\geq 2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3)$$

다. 輸入代替效果

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보다 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度가 20% 이상인 產業도 對外競爭力을 保有한 產業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즉

$$1>\bar{g}_i\geq 0.8$$

$$\frac{T_i^0 MS_i}{g_i}\geq 2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14)$$

라. 純對外效果 (輸出擴大效果 및 輸入代替效果를 합한 純對外效果)

產業生產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보다는 크고 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를 합한 純效果가 生產增加에 20% 이상을 寄與한 產業을 對外競爭力이 있는 產業으로 보기로 한다.

$$1>\bar{g}\geq 0.8$$

$$T_i^0(EX_i+MS_i)/g_i\geq 20\% \quad \cdots\cdots\cdots\cdots(15)$$

3. 資料의 構成

앞에서 說明한 模型을 통해 實證分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韓國銀行의 1975年 및 1980年 產業聯關表를 基本資料源으로 利用하였다.

먼저 1975年의 392×392部門 產業聯關表와 1980年의 396×396部門 產業聯關表를 333×333部門 產業聯關表로 統合하였다. 이 중 54部門에서 260部門까지가 製造業部門으로서 우리의 分析對象이 되었다.

이제 各部門에서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附加價値 比重을 보아 中小企業 中心產業과 大企業 中心產業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產業聯關表上에서는 이와 같은 作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시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經濟企劃院)와 연결하여야만 되었다. 왜냐하면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에서는 韓國標準產業分類(KSIC)別로 企業規模別 附加價値比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33×333 統合 產業聯關表와 KSIC 5-digit 產業과를 연결하여 各部門別 中小企業 附加價値比重을 計算하여 그 結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7].

— L(大企業 中心產業)—大企業 附加價値比重이 50% 이상

— SM(中小企業 中心產業)

SM1—中小企業 附加價値比重 50~59%

7) 이같은 過程을 거친 分類結果는 金栽元(1985) 〈附表 8〉에 要約되어 있음.

SM2— 〃 60～69%

SM3— 〃 70%이상

또 生産量의 增加를 計算하기 위하여서는 各産業聯關表의 生産量을 不變價格으로 換價하여야 된다. 現在 우리나라의 物價體系는 1980年을 基準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975年 産業聯關表를 1980年 價格으로 換價하였다. 여기서 使用된 物價指數는 韓國銀行의 『物價總覽』을 利用하였으며 物價總覽에서 細分되지 않은 品目別 價格指數는 加重値를 利用하여 우리의 333×333 統合産業聯關表의 部門과 같아지도록 다시 調整·計算하여 利用하였다.

4. 實證分析의 結果

먼저 우리가 分析의 對象으로 한 産業集團(sample)의 構成은 〈表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各産業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附加價値比率이 50% 이상인 産業을 中小企業中心産業으로 區分하고 大企業의 附加價値比率이 50% 이상인 産業을 大企業中心産業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分析對象인 207個 I-O部門中에서 112個(54.1%) 産業이 中小企業中心産業이었으며 95個(45.9%) 産業이 大企業中心産業이었다.

韓國標準産業分類(KSIC)에 의한 區分에서 보면 522個의 5-digit産業中 304個(58.2%)産業이 中小企業中心産業이고 218個(41.8%)産業이 大企業中心産業이었다.

中小企業中心産業과 大企業中心産業을 産業數로 구분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中心産業의 數가 過半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附加價値比重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中小企業中心産業의 附加價値合計는 325.4(全體=1,000)에 불과한 데 반해 大企業中心産業의 附加價値合計는 674.6에 이른다. 이것은 大企業中心産業에서의 中小企業比重은 아주 미미한 데 반해 中小企業中心産業에서의 大企業比重은 50%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당한 水準에 있기 때문이다. 또 大企業中心産業에서의 全製造業에 대한 附加價値比重이 一般的으로 크기 때문이다.

〈表 1〉 産業集團의 構成

産業區分	中小企業附加價値占有率(%)	全製造業			高成長産業		
		I-O部門數	KSIC 産業數	附加價値比重	I-O部門數	KSIC 産業數	附加價値比重
SM 1	50～59	15 (7.2)	37 (7.1)	55.2 (5.5)	11 (9.6)	32 (10.5)	47.7 (9.0)
SM 2	60～69	17 (8.2)	64 (12.3)	85.4 (8.5)	9 (7.9)	23 (7.5)	44.0 (8.3)
SM 3	70以上	80 (38.6)	203 (38.9)	184.8 (18.5)	38 (33.3)	120 (39.3)	99.8 (18.8)
中小企業中心産業	50以上	112 (54.1)	304 (58.2)	325.4 (32.5)	58 (50.9)	175 (57.4)	191.5 (36.1)
大企業中心産業	50以下	95 (45.9)	218 (41.8)	674.6 (67.5)	56 (49.1)	130 (42.6)	339.1 (63.9)
合計		207 (100.0)	522 (100.0)	1000.0 (100.0)	114 (100.0)	305 (100.0)	530.6 (100.0)

가. 高成長産業의 構成

먼저 高成長産業이란 生産增加率이 製造業 全體의 平均生産增加率보다 더 큰 産業을 말한다. 이들 産業을 I-O部門數로 보면 總 207個 製造業部門中에서 114個 部門이 高成長産業으로 確認되었으며 이 가운데 58個(50.9%) 部門이 中小企業中心産業이었으며 56個(49.1%)部門이 大企業中心産業이었다. 58個의 中小企業中心産業中에서 38個 部門이 中小企業의 附加價値比重이 70%가 넘는 産業이었다. 이들을 다시 KSIC 5-digit産業에서 보면 總 305個의 製造業中에서 305個 産業이 高成長産業으로 確認되었으며 이중에서 175個(57.4%)가 中小企業中心産業, 그리고 130個(42.6%) 産業이 大企業中心産業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比率을 附加價値比重으로 보면 매우 다른 形態를 보인다. 즉 207個의 I-O部門 또는 522個의 KSIC 5-digit 産業中에서 高成長産業으로 간주되는 産業(I-O部門으로는 114個部門, KSIC産業으로 305個 産業)들의 附加價値比重은 530.6(全製造業=1,000)이며 이중 36.1%는 中小企業中心産業에 속해 있는 産業들(I-O部門으로는 58個, KSIC産業으로는 175個)의 附加價値比重이며 大企業中心産業의 附加價値比重은 63.9%에 이른다. 이것은 産業數로는 中小企業中心産業이 더 많지만 이들 産業들의 全製造業에서 차지하는 附加價値生産比重은 훨씬 작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大企業中心임을 보여주는 셈이다[8].

나. 産業別 成長要因의 分析

이제 各産業別 및 企業規模群別로 成長(生産增加)의 要因을 보기로 한다. 成長의 要因은 式(11)을 利用하여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表 2〉 産業別·企業規模別 成長要因[3]

(I-O 部門數)[1]

	中小企業産業			大企業産業			全製造業	
	高成長	低成長	小計	高成長	低成長	小計	高成長	低成長
輸出擴大産業[4]	16 (18.1)	16 (46.5)	32 (64.6)	8 (38.0)	13 (106.8)	21 (144.8)	24 (56.1)	29 (153.3)
輸入代替産業[4]	21 (106.3)	19 (31.2)	40 (137.5)	23 (125.7)	11 (33.7)	34 (159.4)	44 (232.0)	30 (64.9)
內需産業	24 (74.3)	22 (68.1)	46 (142.4)	28 (191.6)	18 (203.5)	46 (395.1)	52 (265.9)	40 (271.6)
合計	61 (198.7)	57 (145.8)	118 (344.5)	59 (355.3)	42 (344.0)	101 (699.3)	120 (554.0)	99 (489.8)
重複되는産業[2]	3 (7.2)	3 (11.9)	6 (19.1)	3 (16.2)	3 (8.5)	6 (24.7)	6 (23.4)	6 (20.4)

註 : 1) ( ) 안의 숫자는 附加價値比重(全製造業=1,000)임.
2) 輸出擴大産業과 輸入代替産業에 동시에 포함되는 産業數(附加價値比重)임.
3) 成長率은 1975年과 1980年의 附加價値生産額 比較로 계산하였으며 附加價値比重은 1980年의 全製造業에 대한 各産業別 附加價値比重의 合計임.
4) 生産增加率의 크기에 불문하고 輸出擴大效果 및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임.

8) 이같은 現象은 또한 海外로부터의 少量注文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frac{T_i^0 f_i^*}{g_i}+\frac{T_i^0 EX_i}{g_i}+\frac{T_i^0 MS_i}{g_i}=1$$

그러므로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 $\left(\frac{T_i^0 EX_i}{g_i}\times 100\right)$과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 $\left(\frac{T_i^0 MS_i}{g_i}\times 100\right)$이 20% 以上인 産業을 各各 輸出擴大産業 및 輸入代替産業으로 하고 그밖의 産業들은 國內의 最終需要增加에 의하고 있으므로 內需産業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한 分析의 結果가 〈表 2〉에 要約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즉, 많은 産業들이 輸入代替에 의해서 成長이 유도되었다는 점이다. 製造業 全體로 볼 때, 44個의 I-O部門(附加價値比重으로 보면 全體의 23.2%)이 輸入代替效果에 의해서 成長이 유도되었으며 이같은 現象은 中小企業中心産業이나 大企業中心産業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Nishimizu-Robinson의 硏究와는 매우 다른 結果라고 보여진다[9]. 즉 Nishimizu-Robinson은 準工業國家(semi-industrialized countries)에서 輸入代替는 높은 보호장벽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輸入代替産業에서 經濟的效率性(또는 要素生産性)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輸入代替産業에서 附加價値生産增加率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計測되었으므로 위의 發見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現象이 예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우리의 分析對象期間(1975~80年) 동안에 우리나라는 重化學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國內投資가 급격히 增加하였기 때문에 輸出의 擴大보다는 輸入의 代替가 經濟的效率을 추구하는 데 더 效果的이었을 것이라는 전반적 經濟環境에 관한 관점이 있고, 둘째는 그같은 經濟環境下이기 때문에 輸入代替의 誘因政策(防衛産業育成策 包含)이 成功的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10].

다. 對外競爭力 保有産業의 規模別 分布

對外競爭力에 있어서는 産業數만을 基準으로 보면 中小企業中心産業이 더 對外競爭的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成長速度(低成長 포함)에 관계없이 輸出擴大産業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32個, 그리고 大企業中心産業에는 21個産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産業들의 附加價値比重을 보면 그 結果가 약간 달라진다. 中小企業中心産業中에서 輸出擴大産業들의 附加價値比重은 6.5%인 데 비해 大企業中心産業에 속하는 輸出擴大産業들의 附加價値比重은 14.5%에 이르렀다. 그러나 輸入代替産業이 13.8%, 大企業中心産業이 15.9%로 대체로 비슷한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서의 輸入代替能力이 大企業中心産業에서의 그것에 비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對外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産業의 企業規模群別 分布狀況은 〈表 3〉과 같다. 먼저 高成長産業(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의 合이 零 이하인 産業은 除外)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40個, 大企業中心産業에 43個 포함되어 있다. 輸出擴大産業(生産增加率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 이상이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

9) M. Nishimizu and Robinson S. (1985).

10) 高成長産業들의 構造的 特徵은 〈附表 1〉에 要約되어 있음.

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3個, 大企業中心産業에 5個, 그리고 輸入代替産業(生産增加率 指數가 1보다는 작으나 0.8 보다는 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4個, 大企業中心産業에 2個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관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와 환기가 필요하다. 첫째,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輸出擴大와 輸入代替는 動態的 槪念으로 測定한 것이기 때문에 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가 크지 않다고 해서 當該産業에서 輸出能力이나 輸入代替能力이 작은 것으로 評價해서는 안된다. 輸出比率(當該産業 生産總量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率)이 이미 매우 높거나 輸入比率(特定産業에서의 輸入總量이 當該産業 生産總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이미 매우 낮아서 比較時點에서 그것들이 더 增加하거나 더 減少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分析에서는 輸出擴大産業이나 輸入代替産業으로 測定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 때문에 生産增加率 指數가 큰 産業을 對外競爭力 保有産業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輸出擴大産業이나 輸入代替産業을 따로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 意味를 갖게 되는 까닭은 주어진 經濟與件下에서 새로이 對外競爭의 能力 또는 可能性을 갖는 産業들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둘째, 對外競爭의 能力을 갖는 産業을 골라냄에 있어서 各産業이 經濟內에서 갖는 比重(附加價値 比重)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産業數로 하는 데에도 그럴 만한 충분한 理由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고 따라서 貿易構造도 單純品目의 大量輸出方式보다는 産業內 專門化(intra-industry specialization)를 통해서 交易品目의 多樣化가 要請되기 때문이다.

〈表 3〉 對外競爭力 保有産業의 分布(I-O部門)

	高成長産業[1]	輸出擴大産業[2]	輸入代替産業[3]	合計
SM 3	26	3	1	30
SM 2	7	—	2	9
SM 1	7	—	1	8
中小企業中心産業	40 (58)	3	4	47 (65)
大企業中心産業	43 (56)	5	2	50 (63)
合計	83 (114)	8	6	97 (134)

註 : 1) 産業別 生産增加率指數가 1보다 큰 産業中에서 輸出擴大效果 및 輸入代替效果의 合이 0보다 작은 産業은 除外하였음(괄호안의 숫자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産業部門數임).
2) 高成長産業에 속하지 않는 産業中에서 生産增加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附表 2參照).
3) 高成長産業에 속하지 않는 産業中에서 生産增加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附表 3 參照).

그러므로 어느 特定産業이 現在에는 經濟內에서 매우 微微한 比重을 차지하지만 對外競爭力 面에서 可能性(potentiality)을 가지면 育成의 가치가 충분히 認定된다고 볼 수 있다.

N.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는 과거에 高度成長을 추구하는 政策過程에서 國內의 物價上昇, 不均衡的 産業支援政策으로 말미암아 産業構造가 크게 歪曲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賦存資源條件과 産業構造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特定産業에서 우리나라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比較優位의 利點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比較優位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그 産業을 育成하기 위해서 많은 生産資源(또는 生産要素)를 投入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産業構造가 이렇게 歪曲되어 있으면 資源의 利用에 있어서 效率性이 떨어져서 앞으로의 高度成長에 불필요하게 많은 費用을 浪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歪曲을 是正(産業構造의 再調整)하기 위해서 우리는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促求하고 活性化된 市場에서 資源이 配分되도록 여러 가지 政策手段을 동원하고 있다. 그 代表的 예가 民間主導에 의한 經濟運營, 經濟開放化(輸入自由化), 金融自律化 등이다. 우리는 理論的 模型의 接近을 통해서 위와 같은 여러 政策手段이 成功的으로 效果를 發揮하면 勞動集約的 生産方式 또는 中小企業의 經濟活動이 相對的으로 크게 고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經濟內部에서의 調整過程에서 발생하게 되는 構造的 問題, 즉 資本集約的 産業에서의 相對的 生産活動 위축이 가져올 過剩施設, 構造的 失業 등의 問題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技術의 開發은 産業構造 調整過程에서 발생하는 經濟內에서의 構造的 問題를 解決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所得의 增加와 經濟의 發展段階가 高度化되면서 발생하는 國內外市場構造變化에 따르는 構造的 問題를 해결하는데에도 절실하게 要求된다. 다시 말해서 單純勞動集約的 産業에서의 比較優位가 아니라 熟練勞動 또는 技術集約的 産業에서의 比較優位를 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 즉 産業構造 高度化의 必要性 때문이다. 産業構造가 高度化된다는 것은 産業間 專門化(inter-industry specialization)뿐만 아니라 産業內 專門化(intra-industry specialization)가 深化되는 것을 意味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貿易構造도 더욱 細分化된 專門度에 따라 多岐化될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中小企業의 育成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의 促進 및 輸入代替의 可能性을 過去의 資料를 통하여 檢討하여 보았다. 우리가 사용한 資料는 1975年과 1980年의 産業聯關表를 比較하는 것이었다. 1975年은 第1次石油波動으로부터 世界經濟가 回復하는 時點인 반면 1980年은 第2次石油波動 이후 世界 經濟가 침체되어 있던 時期였다. 더구나 우리나라 經濟는 政治的·社會的 不安定과 農業部門에서의 凶作으로 극심한 침체(負의 成長)를 보였던 時點이었다. 따라서 위의 두 年度가 比較時點으로서는 最適이랄 수 없겠지만 대체적인 추세와 可能性만을 보기에는 큰 不便이 없었다.

먼저 207個의 I-O部門을 企業規模別 附加價値比重에 따라 112個의 中小企業中心産業과 95個의 大企業中心産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産業數로는 中小企業中心産業이 더 많았지만 附加價値比重으로는 中小企業中心産業이 32.5%, 大企業中心産業이 67.5%로서 大企業中心産業이 훨씬 더 컸다.

207個의 I-O部門中에서 高成長産業(生産增加率이 製造業 全體의 平均增加率보다 더 큰 産業)이 114個로서 中小企業中心産業이 58個, 大企業中心産業이 56個이었다. 우리는 生産增加率이 높은 産業을 1次的으로 對外競爭力이 있는 産業에서의 生産增加는 輸出擴大效果, 輸入代替效果, 內需效果에 의해서 誘導되는데, 우리나라는 開放經濟體制를 維持하고 있으므로 內需增加가 輸出의 減少나 輸入增加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國內에서의 生産增加를 가져왔으면(需要의 生産彈力度가 크면) 對外競爭力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成長産業中에서 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의 合이 0보다 작은 産業(예를 들어 輸入比率의 增加가 輸出比率增加를 능가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보면 中小企業中心産業이 40個, 大企業中心産業이 43個에 이른다. 成長速度에 關係없이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數는 中小企業中心産業에 32個, 大企業産業에 21個, 그리고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數는 中小企業中心産業에 40個, 大企業中心産業에 34個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産業生産增加率이 製造業平均에는 이르지 못하지만(高成長 産業群에 포함되지 않은 産業) 그것이 製造業平均增加率에 0.8 이상이고 輸出擴大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3個, 大企業中心産業에 5個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高成長産業群에는 속하지 않지만 生産增加率 指數가 0.8 이상이면서 輸入代替效果의 成長寄與率이 20% 이상인 産業은 中小企業中心産業에 4個, 大企業中心産業에 2個가 포함되어 있다.

産業數만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中小企業中心産業의 對外競爭力(특히 輸入代替效果)이 大企業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관찰은 産業數만을 가지고 본 것이므로 中小企業中心産業에서의 附加價値比重도 産業數의 比率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高度成長을 추구함에 있어서 産業構造의 高度化, 輸出構造의 多岐化, 輸入代替의 促進 등을 誘導하여야 하며 이들은 모두 産業內 專門化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産業數에 의한 관찰도 큰 意味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中小企業育成은 社會政策的 배려로 끝나서는 안 되고 經濟的 原理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栽元,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總要素生産性比較—製造業, 1970~79』, KDI, 1984.

_____, 『産業構造高度化와 中小企業의 育成』, 韓國開發研究院, 1985.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査報告書』, 1975, 1980.

韓國銀行, 『産業聯關表』, 1978, 1983.

_____, 『物價總覽』, 1982.

Kim, J.W., "CES Production Functions in Manufacturing and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LDCs: Evidence from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Oct. 1984.

Laumas, P.S., "Key Sectors in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KYKLOS*, Vol. 28, 1975.

Nishimizu, M. and S. Robinson, "Trade Polices and Productivity Change in Semi-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Forthcoming.

Rasmussen, P.N., *Studies in Inter-Sectoral Relation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56.

〈附表 1〉 高成長産業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03	위생재료	SM 3	−25.9	59
105	모피 및 모피제품	SM 3	93.39	−52.55
107	기타혁제품	SM 3	11.26	32.81
111	목제가구	L	−40.53	17.80
112	목제건구	SM 3	43.15	5.13
120*	판지	SM 1	−30.15	18.80
122*	건축용지	SM 3	−0.91	−5.43
123	가공지	SM 3	6.62	13.41
124*	지제용기 및 기타지제품	SM 3	5.96	−27.12
125	사무용지	SM 3	22.98	28.66
126	신문	L	6.38	0.68
127	서적 정기간행물	SM 2	−1.50	7.95
129	유기기초화학	SM 1	−33.17	75.84
134	복합비료	L	19.41	77.47
136	의약품	L	−0.14	9.93
137*	화장품 및 치약	L	−0.23	−0.64
138	합성수지	SM 3	−23.69	39.04
140*	합성고무	SM 3	59.07	−60.24
142	합성섬유	L	−5.46	35.74
143	염료 유연제 안료	SM 3	49.48	38.25
144	도료	SM 2	−7.62	54.61
145	비누 합성세제	L	−0.09	15.78
147*	사진감광재료	SM 3	21.74	−105.87
148	잉크류	SM 3	1.53	2.88
149	방향류	SM 3	−3.54	41.27
151	기타화학제품	SM 3	37.28	−13.07
156	석탄건류제품	SM 3	−19.93	101.16
157	타이어 튜브	L	22.19	32.00
159*	공업용 고무제품	SM 1	40.97	−53.18
161	도자기	L	14.24	57.53
163	유리섬유 및 동제품	L	49.72	−21.55
164	산업용 기타유리	SM 1	−7.27	29.62
166	내화용 점토제품	SM 2	−1.61	67.29
168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SM 2	−1.50	−0.01
172	연마제	SM 3	−2.94	46.57
173	석제품	SM 3	91.43	−10.48
174*	키타토석제품	SM 3	9.69	−27.81
175	선철	SM 2	7.64	53.02
176*	합금철	SM 2	22.45	−29.63
177	보통강	SM 2	10.20	59.05
178	특수강	SM 2	−10.14	10.81
179	열연강판	L	−8.29	92.83
180	냉연강판	L	13.37	46.27
181	봉강, 형강, 철강	L	21.72	14.24
182	강판	L	14.23	41.73

〈附表 1〉의 계속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83	도금강재	L	21.00	32.93
185*	주철관	L	0.54	−25.07
190	아연괴	L	−7.70	78.97
191	동압연품	L	−3.99	29.88
192	알루미늄 압연품	L	−44.82	76.89
193	기타비철금속압연품	L	−23.98	58.71
194*	기타비철금속일차	SM 1	72.3	−141.58
195	금속가구	SM 3	−5.55	10.54
196*	가정용 금속제품	L	−12.4	−8.8
198	철선제품	SM 2	8.53	18.40
199	건설용금속	SM 1	25.56	33.22
202	나사제품	SM 3	16.55	11.83
203	금속포장용기	L	19.36	44.93
204	금속제품	SM 3	11.24	−3.89
205	원동기	SM 3	−11.84	67.47
206	금속절삭기계	SM 3	8.44	61.27
207*	금속가공기계	SM 3	2.5	−24.3
209	목공기계	SM 3	37.21	−11.93
210	건설 및 광산기계	L	0.10	75.54
212	식료품가공기계	L	−2.63	7.15
213*	기타산업기계	SM 3	1.72	−58.61
216*	보일러	SM 3	−20.86	−46.67
217	일반기계부분품	L	8.61	18.08
218	냉장고	L	10.04	1.43
219	선풍기	SM 1	10.77	−5.90
220	가정용전자기기	SM 1	9.98	11.03
221	발전기 및 발동기	L	2.24	6.77
223	송배전기기	L	2.78	31.96
224*	기타산업용전기	SM 3	50.10	−97.79
225	전선 및 케이블	L	−8.78	28.76
226*	전구	SM 1	4.33	−45.87
229	가정용 전자기기	L	1.89	17.25
230	전자응용기기	SM 1	−0.77	84.40
233*	저항기 및 콘덴서	L	−37.68	22.04
234*	코일 및 변성기	L	1.85	−28.43
235	기타전자부품	L	−21.59	92.82
236*	유선통신기기	L	5.24	−29.67
237	무선통신기기	SM 3	−16.48	56.29
239	목조 및 기타선박	SM 3	89.83	−19.44
240	선박부분품	SM 3	573.42	−363.36
241	철도차량	L	−35.04	77.89
242	철도차량부품	L	0.45	9.46
243	승용차, 버스, 트럭, 자동차	L	9.95	23.90
244*	자동차 부분품	L	31.39	−42.63
246*	모터사이클	L	−3.33	1.77

〈附表 1〉의 계속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247*	항공기수송용기계	SM 3	5.04	−85.79
248	의료기기	SM 3	−3.63	21.59
249	계측기기	L	−5.47	49.82
250*	광학기기	L	−46.91	−7.23
251	시계	L	13.56	12.76
253*	악기	L	−77.71	−1.12
254	운동용구	L	35.46	−10.69
255	문방구류	L	1.22	4.36
256*	장난감	SM 3	−24.78	−1.05
55	낙농품	L	−0.89	4.82
60	정미제분	SM 3	−4.11	15.50
62*	엿	L	0.72	−2.96
63*	기타제당	L	−2.22	−20.00
65	과자류	L	4.44	−2.64
66	면류	L	1.95	−1.44
79	배합사료	SM 3	−4.49	6.31
82	맥주	L	−10.83	17.24
84*	기타주류	SM 3	−8.07	0.09
85*	청량음료	L	−11.20	7.43
87	면사	L	−0.41	40.88
89	모사	L	87.63	−22.33
91	화학섬유사	L	7.62	−3.26
93	면직물	SM 1	−40.33	84.20
94	모직물	L	32.90	23.23

註 : 輸出擴大効果 및 輸入代替効果의 合이 0보다 작은 産業임.

〈附表 2〉 對外競爭力 保有産業 Ⅱ(輸出擴大産業群)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생산증가지수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06	혁제화류	L	0.882	84.89	−0.02
115	기타목제품	SM 3	0.94	62.96	3.62
146	접착제 제라틴	SM 3	0.906	30.80	11.58
187	금은비철금속괴	L	0.87	30.4	5.4
227	전지	L	0.890	34.97	−17.63
238	강철제 선박	L	0.816	67.81	−19.82
260	기타공업제품	SM 3	0.98	24.46	−24.5
96	화학섬유직물	L	0.874	69.86	19.66

註 : 高成長産業群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成長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出擴大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以上인 産業.

〈附表 3〉 對外競爭力 保有産業 Ⅲ(輸入代替産業群)

I-O	산 업 명	산업구분	생산증가지수	수출확대효과	수입대체효과
135	농약	SM 1	0.853	−8.00	93.83
184	주철물	L	0.880	−6.15	66.26
211	섬유기계	SM 3	0.837	9.53	98.16
215	재봉기	SM 2	0.860	−12.86	96.21
228	기타전기기	SM 2	0.835	−9.78	49.86
232	반도체소자 직접회로	L	0.956	−164.95	90.12

註 : 高成長産業群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成長率指數가 0.8보다 크고 輸入代替効果의 成長寄與率이 20% 以上인 産業.